

#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 정답

1	⑤	2	⑤	3	③	4	②	5	⑤
6	④	7	②	8	⑤	9	④	10	①
11	①	12	④	13	①	14	①	15	⑤
16	⑤	17	③	18	②	19	⑤	20	①
21	③	22	④	23	②	24	②	25	④
26	②	27	③	28	④	29	③	30	⑤
31	①	32	⑤	33	②	34	②		

## 해설

※ 독서 이론 ※

□ 출전: 원철원, 「'질문'에 기반한 주희의 독서관 분석」

### 1.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 따르면, '여러 해설 중에서도 학자 간에 설명의 차이가 있는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여러 학자의 해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자 자신의 생각과 같은 지점이라는 것은 읽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다른 질문을 위한 단초', 즉 실마리가 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의 핵심은 독서이며, 독서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만을 강화하려는 편향된 사고'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세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 2.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즉시 찾지 못한 경우'라도 '독서를 통한 학문적 탐구를 지속하다 보면 답을 찾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역시로 답을 찾지 말고 '질문을 쌓아 둔 채 독서를 통한 학문적 탐구를 지속하다 보면' '분야가 다를지라도 ~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3.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 따르면, 여러 학자의 서로 다른 설명을 비교하여 이해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㉔는 여러 학자 간에 설명의 차이가 있는 지점을 비교하여 답을 찾는 과정이므로, 이를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배움이 일어나려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며, '독서 방법으로서의 '질문'을 강조하였다. ㉔는 책을 읽으며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 주희가 필요하다고 한 독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자신의 주장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읽는 것을 독서의 병폐라고 지적하며, '저자의 주장에 ~ 사례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㉔는 자신의 견해를 의심하는 것으로, 주희가 지적한 독서의 병폐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여러 해설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설명을 통해 자신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 ㉔의 '문화권마다 최상위의 욕구는 다를 수 있다.'는 새로 알게 되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여러 학자의 설명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되어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과 여러 학자의 생각을 비교하여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심화된 질문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㉔는 연구 보고서의 주제로 삼을 만한 심화된 질문을 떠올린 것으로, 자신의 견해와 여러 학자의 견해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제 통합 ※

□ 출전: (가) 김비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나) 김성호 외, 「법과 정의의 사이: 데리다에 있어서 헌법의 정당성」

### 4. [출제 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사상인 로고스 중심주의가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경향을 언급하고,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한 데리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① (가)는 로고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렌트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로고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서구 전통 철학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데리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지만, 두 주장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로고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개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아렌트의 주장을 설명하고 의의를 밝히고 있지만, 한계를 밝히지는 않았다. (나)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비판한 데리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 5.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정치적 자유'를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 안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2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2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보았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2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4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았다.

### 6.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데리다는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라고 하였고, 4문단에 따르면,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으며, 대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데리다의 주장은 맞으나, 데리다의 철학이 허무주의가 아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불안정하다'고 보았지만,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으므로, 대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다'고 하였으므로, 대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데리다의 주장은 맞으나, 데리다의 철학이 허무주의가 아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불안정하다'고 보았지만,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으므로, 대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다'고 하였으므로, 대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7. [출제 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다'고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4문단에 따르면,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헌법은 제한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며, '체현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㉔이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참여가 중요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체현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국가 설립의 기반이 부재함을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순수한 근원을 상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하였다. 따라서 ㉔이 근원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실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㉔이 맹목적인 믿음의 해체를 통해 법에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하였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개인적 욕망에 따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질서 확립의 시급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비판'하며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고자 하였다.

**8.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체현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한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동일성을 중시한 서구 전통 철학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C 지역 주민의 주민 의회가 발안한 법률에 대해 테리다가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민주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보기>의 A 국에서의 혁명으로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바탕으로 B 연방국이 설립되었으므로, 아렌트는 이것에 대해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것이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4문단에 따르면,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라고 보았다. <보기>의 B 연방국의 헌법은 각 지역 대표들의 토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주민 자치 및 주민 의회 제도를 통해 공적 공간을 형성했으므로, 아렌트는 이것에 대해 국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것이다.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보기>의 B 연방국이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아렌트는 이것에 대해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체현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보기>의 이민주들은 국가의 경계 밖에 있는 타자로서, 국가의 틀로 인해 B 연방국의 C 지역 주민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으므로, 테리다는 이것에 대해 국가의 틀로 인해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것이라 볼 것이다.

**9. [출제 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담보하다'는 '맡아서 보증하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분별하다'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②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 '향유하다'는 '누려야 가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④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기술 \*\***

**□ 출전: 이재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0.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인장에 강한 철근이나 강연선 등의 강재를 배치하여 인장응력을 부담하게'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강재가 인장력에 강하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강재의 인장력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② 2문단에 따르면, 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면 부재인 보의 하단에 '인장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였다. 보의 재료인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한 재료'이므로,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재의 아래쪽에 인장에 강한 철근이나 강연선 등의 강재를 배치하여 인장응력을 부담하게 한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이므로 압축응력을 미리 준 만큼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상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압축응력으로 인장응력이 상쇄되는 이유는 압축력과 인장력의 작용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부분 긴장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폭이 작고 활하중이 제거되면 긴장력에 의해 균열이 폐합되는 회복 가능한 특성이 있어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하였으므로, '부분 긴장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우수한 이유를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완전 긴장 콘크리트는 '큰 긴장력이 도입되기 때문에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중앙부에 솟음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완전 긴장 콘크리트의 부재에 솟음이 발생하는 요인이 큰 긴장력 도입임을 알 수 있다.

**11.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제작 과정에서 부재에 압축응력을 주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므로, 활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긴장력을 가하는 것이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텐션 방식(㉡)의 공통점임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 따르면, 프리텐션 방식은 '강재에 인장력을 가해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강재의 인장력을 풀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포스트텐션 방식은 강재의 인장력을 풀지 않는다. ③ 5문단에 따르면, 포스트텐션 방식은 '관에 강재를 삽입하고 인장한 후 양 끝을 정착장치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양 끝의 정착장치가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콘크리트에 긴장력이 도입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프리텐션 방식은 정착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④ 5문단에 따르면, 프리텐션 방식은 '콘크리트에 부착된 강재가 수축하면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콘크리트에 마찰력으로 전달되어 긴장력을 주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포스트텐션 방식은 강재가 관 안으로 삽입되는 것으로 강재와 콘크리트가 직접 부착되지 않는다. ⑤ 5문단에 따르면, 포스트텐션 방식은 '콘크리트가 굳으면 관에 강재를 삽입하고 인장'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프리텐션 방식은 미리 강재에 인장력을 가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포스트텐션 방식과 차이가 있다.

**12.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 따르면, '부분 긴장 콘크리트는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준 것'이다. 인장응력이 상쇄되었으므로 이때 부재에는 압축응력만 작용하고, 부재의 전 단면에 하중에 저항한다. ㉠ 방식으로 제작한 보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하려면 고정하중만 작용하는 상태여야 하므로, 활하중이 10kN으로 줄어든다면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 따르면,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교량 A에 설치

된 보에 하중에 의한 균열이 심해져서 철거한다고 하였으므로 인장응력이 인장장도보다 커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방식으로 보를 제작했을 때 균열하중은 25kN이고 사용하중은 30kN이므로 보는 아래로 휘어지면서 균열이 발생한다. 2문단에 따르면, 보가 휘어질 때 '보의 상단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였으므로 ㉡ 방식으로 보를 제작했을 때 사용하중이 작용한다면 보의 상단 길이는 짧아진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완전 긴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이라도 사용하중이 계획한 무게보다 커지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활하중이 25kN으로 늘어나면 사용하중이 40kN이 되므로 ㉠의 균열하중인 35kN을 넘게 된다. 그러면 ㉡ 방식으로 제작한 보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하여 균열이 생기게 된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부분 긴장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활하중이 제거되면 긴장력에 의해 균열이 폐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활하중이 15kN으로 유지된다면 활하중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 방식으로 제작한 보에 발생한 균열이 폐합되지 않는다.

**13. [출제 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⑥의 '이루다'는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라는 의미이므로, '그림의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었다.'에서 쓰인 의미와 유사하다.

②의 '이루다'는 '뜻한 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의 '이루다'는 '뜻한 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의 '이루다'는 '뜻한 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의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사회 \*\***

**□ 출전: 정하중 외, 『행정법론』**

**14.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률효과와 내용'이다.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는 모두 법률적 행정행위로써 법률효과가 있으므로 법률효과와 유무에 따라 둘을 구분할 수 없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명령적 행정행위의 하나인 허가를 통해 '법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1문단에 따르면, '명령적 행정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5문단에 따르면,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를 통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법률상의 힘을 특정인에게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5.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허가가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행정행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에 따르면, '허가는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다가' 법률요건을 충족하여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허가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다가 그 금지를 해제'하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 따르면,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는 항상 신청을 필요 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에는 허가의 거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즉 허가의 경우 '법률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허가를 거부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4문단에서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라는 설명에 어긋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허가는 '법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법률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해서 '그 금지를 해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지해 두었던 행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요건, 즉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6.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 따르면, 허가는 공익 침해의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한 행위에 대해 법률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었겠다고 판단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때 행정청은 법률요건을 충족했는데, 즉 공익 침해의 가능성이 없어졌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게 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였다가 그 금지를 해제했다면 이는 미리 심사하고 판단한 결과, 금지하였던 일이 가지고 있던 공익 침해의 우려가 사라져서 사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허가)로 공익 침해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먼저 금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었다가 공익 침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행정행위가 필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공익 침해의 우려가 없음을 심사하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하는 것이 공익 침해가 발생한 사후에 공익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므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17.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에서 갑의 신청이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청은 자연 유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문단에 따르면,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① (가)에서 갑의 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고, 법률요건을 충족했다. 4문단에 따르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갑의 신청은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행정청은 갑이 신청한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지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를 허용했다면, '예외적 승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문단에 따르면, '예외적 승인'은 '역제적 금지의 해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행정청이 갑의 신청이 금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된 바를 재량권을 발휘하여 금지하지 않다고 된다고 판단한 것임을 의미한다. 3문단에 따르면, '예외적 승인'의 경우 금지의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 이청준, 「불 머금은 향아리」

18. [출제 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허 노인은 용술이 자기 허락 없이 ~ 물레를 돌리는 것까지는 나무라지 않았다.'에서 용술이 허 노인의 허락 없이 향아리를 만들려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용술이 이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① 사기에 낙서를 했다는 용술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가 '낙서라니, 어떤 식으로 말ियो?'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사내가 용술이 사기에 낙서한 것에 대해 궁금해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마도 달굴 줄 모르면서 모양을 짓는 일부터 익히면 쓸 만한 사기장이 되'기 어렵다는 말을 통해 허 노인은 용술이 가마 달구는 일보다 사기 모양 짓는 일을 익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일의 성패야 어찌 됐든 그 결과에 ~ 제대로 구워진 것이 없었다.'를 통해 허 노인과 사내 앞에서 가마를 연 용술은 사기가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사기장이인 허 노인은 한 점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성을 지향하는 인물로, 가마에서 죽어 나온 사기를 깨부순다. 하지만 '살아 나온 사기와 죽어 나온 사기의 차이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는 용술에게 허 노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불길 속에 '잡념'이 없어진 듯 마음이 평온해진 용술은 살아 나온 사기와 죽어 나온 사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허 노인처럼 죽어 나온 사기를 가차 없이 깨부순게 된다. 이를 통해 '물건들의 죽은 데가' '역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용술이 허물 있는 사기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낼 뿐 가마에서 나온 사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허 노인 몰래 사기를 팔았던 용술은 허 노인으로부터 받은 '책벌'이 이제껏 어찌고 있고, 이 책벌이 '너무도 힘들고 가혹했기 때문에 사내의 공모 제의를 수락했을 때 허 노인이 알게 될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③ 용술은 '노인의 눈을 속'이고 사기를 팔아 '식량'과 '옷가지'를 마련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허 노인이 '전에 없이' 사기의 개수를 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용술이 당황해하고 있다.

20. [출제 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 점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성을 지향하는 허 노인은 자신처럼 용술이 가마에서 나온 허물 있는 사기를 깨부순면서 '쓸 만한 사기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③ 사내가 '용술과의 공모를 제의'했을 때 용술은 '노인의 책벌이 너무도 힘들고 가혹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다. 즉 사내의 공모 제의 전에 허 노인이 용술에게 작은 죄명지를 건넸으므로, 사내의 제의에 흔들린 용술에게 내린 책벌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사기장이의 근본을 볼 때는 법을 익히는 것으로 여기는 허 노인은 제자인 용술에게 불일을 운통 내맡기며 용술이 '쓸 만한 사기장이'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용술이 '불일을 운통 내맡'긴 허 노인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을 용술이 스승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용술이 사내에게 '목구멍이 쪼'여서 '사기 값 사정을 사기에다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사기장이들의 생계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② 허 노인은 '자신의 물건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기장이로, 완전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몇 번'을 반복해도 '가마를 열고 나면 ~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결과가 마찬가지로 허 노인의 한 점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허 노인은 가마에서 불길을 낼 때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고 여긴다. 그런 허 노인이 '불길은 숨이 죽지

않고 타'는지 묻고, 이를 용술은 가마의 '불을 지키지 않고 웬 잡념이 그리도 요동을 치고 있'냐는 소리로 듣고 있으므로, 허 노인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용술은 허 노인의 책벌이 '힘들고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마의 불길과 함께 잡념이 타 버린 후에는 노인의 재촉을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용술이 수련공에서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 (가)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 (나) 허전, 「고공가」 (다) 이육, 「지주부」

22.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제5수>의 '양신 미경을 남이 말한다'고 하니 보랏'에서, (나)는 '화살을 제쳐 놓고 옷밖만 다투느냐'에서, (다)는 '그대는 어찌하여 복희씨의 그물을 시비하지 아니하고 백익의 불태움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고요의 형벌 제정을 책망하지 아니하는가?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는 '흰'과 '붉은'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와 (나)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23. [출제 의도]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은 '익은 술'이 쉬고 '지친 화전'이 상해 가니 벗에게 남산에 가자고 제안하며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은 '덧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인 상대의 행동을 들어 상대를 '벌레들의 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4. [출제 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우리 집 기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 어이 아주 없어 /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 마음은 다투는 듯 호수를 시키하는 듯'에서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자는 그것이 간교한 마음이 버렸다'라고 여겨 지팡이를 들이서 거미줄을 걷어 버렸다.에서 ㉡은 '그것이'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겨 거미줄을 걷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자신의 '지팡이'를 더럽힌 거미줄을 걷어내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돌아와 승유편 지어 후세 유전하리라'에서 '승유편'을 짓는 것은 화자가 남산에 다녀온 뒤 수행하고자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승유편'을 짓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의 '죽조만 아침저녁 더' 하는 것은 '너희네'를 향해 베푸는 화자의 은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죽조만 아침저녁 더' 하는 것에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고공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남산에 가'자는 말에 '중시 급제'를 말하는 것에서 남산에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화자와 중시 급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벗의 상이한 가치관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벗'이 있던 것은 '양신 미경을 보려 가려는 것에서 반복되는 벗의 거절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라도 풍류를 즐기겠다는 화자의 생각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새기 한 사리를 꼬며' '에달과'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담화를 마무리하게 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26.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어부’와 ‘우인’이 그물을 놓은 것은 ‘거미’가 ‘줄을 짜는 것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행위이다. 따라서 거미가 우의적으로 비판한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이자가 ‘그것’이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긴 것은 거미를 교활한 미물로 여긴 것이므로 거미에 대한 당대의 통념으로 볼 수 있다. ③ 거미가 ‘복희씨의 그물’과 자신의 그물이 ‘다르겠’냐고 말한 것은 인간의 행위와 거미의 행위가 다르지 않은데도 거미만 탓하는 인간의 편협한 사고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거미가 ‘말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추어 오고 가’라고 한 것은 거미가 인간에게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작가의 생각이 작가로 보이는 이가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존재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자는 ‘작가로 보이는 이로, 이자가 ‘이 말을 듣고 ‘달아난 것은 작가로 보이는 이가 패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 (가) 김수영, 「궁지의 날」  
(나) 강은교, 「섬 - 어원 사랑의 비밀노래」

27.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궁지의 날인가 보다’와 3연의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궁지도 내가 만드는 것’에서, (나)는 3연의 ‘지있네./공기는 왜 사이에 흐르는가./지있네./바다는 왜 사이에 넘치는가.’에서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① (가)는 ‘~인가 보다’라는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나)는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의 2연의 ‘비처럼 퍼부어’, (나)의 4연의 ‘흘리는 눈물’은 모두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의 ‘비’는 화자의 ‘궁지’를 구체화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을 뿐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⑤ (나)는 ‘섬’이 ‘보채’고 ‘눈물’을 흘린다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28. [출제 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의 ‘나’는 2연에서 자신의 ‘최종점은 궁지’라며 이를 ‘과도처럼 요동하여/소리가 없고/비처럼 퍼부어/젖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소리가 없고/젖지 않는 것’은 ‘나’가 지향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소리가 없고/젖지 않는 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함을 인식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1연에서 ‘나’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피로 하였으며, ‘또’ ‘영원히 피로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나’가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는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1연에서 ‘나’는 ‘나의 궁지가’ ‘설움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음을 인식하며 ‘오늘’이 마침내 ‘궁지의 날’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궁지’를 ‘설움과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인식하며 ‘오늘’이 ‘궁지의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2연에서 ‘나’는 피로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환상’은 ‘변개’와 같이 찰나의 시간만을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자신을 나아가게 하는 ‘원천’은 ‘궁지’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변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자신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

하다. ⑤ 3연에서 ‘나’는 ‘피로’와 ‘궁지’ 모두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로’와 ‘궁지’가 모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29.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가)의 ‘꽃’은 ‘피로’와 ‘궁지’를 만들 때마다 ‘한 치를 더 자라는’ ‘나의 몸’을 빚낸 대상이다. 따라서 ‘꽃’은 성장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하늘’은 ‘불’과 ‘재’에 의해 ‘깨매’지는 대상이다. 이는 ‘하늘’이 ‘불’과 ‘재’에 의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하늘’은 화합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① (가)의 화자는 성장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므로, ‘꽃’이 화자의 조급함을 해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나)의 ‘하늘’은 ‘불’과 ‘재’에 의해 하나가 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하늘’이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하늘’이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꽃’은 ‘나의 몸’이 ‘자라는’ 것을 빚내고 있을 뿐,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0.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의 두 섬은 ‘이를 수 없는가’를 말하고, 이후 ‘흘리는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며’ ‘불’과 ‘재’가 만난다. 이를 통해 두 섬이 연결되게 한 공통점은 두 섬이 ‘흘리는 눈물’임을 알 수 있다. ‘불’과 ‘재’가 만나서 ‘빛나는 것은, 이미 두 섬이 연결된 이후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나)의 ‘불’과 ‘재’가 ‘빛나는 것은, 대립적인 면을 지닌 두 섬을 연결되게 만든 공통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가)의 3연에서 ‘모든 설움이 합쳐지는 것이 ‘궁지의 날’이라는 것은 설움이 궁지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움은 궁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가)의 ‘모든 설움이 합쳐지는 것이 ‘궁지의 날’이라는 것은 설움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3연에서 ‘궁지의 날’이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은, 궁지의 마음 상태에 다다른 화자가 다시 설움의 마음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궁지의 날’이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은 상반된 마음 상태인 궁지와 설움이 순환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2연을 보면, 두 섬은 서로 ‘보이지 않’는 고립된 상황으로 인해 ‘꿈이라는 짐을’ 지는다는. 따라서 (나)의 두 섬이 ‘꿈이라는 짐을 지’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4연에서 ‘한 섬이 ~ 눈물에게로 가네.’ 이후 ‘불’과 ‘재’는 ‘만나서’ ‘하늘을 깨매’고 있다. 따라서 (나)의 한 섬의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는 것은 두 섬이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설홍전」

31.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 ‘고함을 지르니 산악이 무너지며’ 등의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의 긴박함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오방신장이 각각 방향을 잃었으니 어찌 용납이 되리오’, ‘돌쇠 이러한 거동을 보고 어찌 두렵지 아니하라.’에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나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내 힘과 검술은 ~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에서 돌쇠의 내적 독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의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2. [출제 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이곳에 우리 군사 저다지 모여 있음을 보니’를 통해, 달왕이 황양동에서 자기 진영의 군사가 모여 있는 것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설홍의 복병이 나타나자 자신이 황양동 백성에게 속았음을 알게 되는데, 황양동 백성을 의심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① ‘육목철이 황동으로 먼저 들어가 대원수를 보시고 달왕을 유인하였다 말하니’를 통해, 육목철이 달왕을 유인했다는 사실을 원수에게 전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너는 승상 맥 노복으로 불완한 마음을 먹고 승상을 죽여 소저에게 강상대죄를 범하였으니’를 통해, 설홍은 돌쇠가 승상에게 한 일이 험하지 못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돌쇠가 설홍에게 ‘무슨 욕심으로 ~ 내 칼을 받으라’라고 한 것을 통해, 돌쇠는 설홍이 소저를 데려가는 것이 욕심이라며 설홍과 맞섬을 알 수 있다. ④ ‘이놈은 대단한 놈이라’,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를 통해, 돌쇠가 설홍과의 대결에서 설홍을 힘으로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33. [출제 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하기

[A]는 설홍이 대화에서 상대방인 ‘돌쇠’를 ‘아직 강보에 싸인 아이’에 빗대고 ‘초 패왕’과 관련된 고사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다. [B]는 ‘만일 동참하지 아니하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라며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인 ‘오방신장’에게 설홍과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34.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설홍과 돌쇠의 대결은 소저의 원한을 해소해 주려는 것에서 비롯된 개인적 차원의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므로, 이들의 대결에서는 충을 실현하려는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

① 돌쇠가 ‘오방신장’에게 명령하자 설홍이 ‘둔갑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 맞서는 부분에서, 개인적 차원의 갈등에서 설홍의 변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결박당했던 달왕이 ‘흰 평’으로 모습을 바꾸어 ‘생왕’으로 달아나는 부분에서, 주인공을 방해하는 인물인 적대자의 변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원수와 달왕의 대결 중 달왕이 ‘보라매’에서 ‘백호’로 변신하는 부분에서, 적대자인 달왕의 변신의 강도가 강화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원수와 달왕의 대결 후에 달왕이 몸을 ‘변신하여 몸을 바꾸어 달아나’는 것은 변신과 도술이 결합해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작품의 환상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④	36	①	37	①	38	③	39	③
40	④	41	①	42	②	43	④	44	④
45	⑤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 의도] 겹문장의 통사적 특징 파악하기

‘-리’는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그녀와 도서관에 갔다.’라는 문장은 ‘나는 그를 만나러.’와 ‘나는 그녀와 도서관에 갔다.’가 어미 ‘-리’로 연결된 겹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다.

① ‘그는 집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그는 ~ 를 싫어한다.’라는 문장에 ‘그가 집에 가다.’가 명사격로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두 절에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그’가 있고, ‘그’가 안긴문장에서 생략되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② ‘그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은 ‘그가 착하다.’가 인용격로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안긴문장의 ‘그’가 안은문장의 ‘그’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므로 안긴문장의 ‘그’가 ‘자기’로 바뀌었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⑤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는 ‘그는 신문을 본다.’와 ‘그는 밥을 먹는다.’가 어미 ‘-면서’로 연결된 겹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36. [출제 의도] 문장의 서술어 파악하기

㉠에서 ‘덥지 않다’의 ‘덥다’는 본용언, ‘않다’는 보조 용언이다. 본용언 ‘덥다’가 생략된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다.’는 주어 ‘날씨가’와 호응하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문이 되는 반면, 보조 용언 ‘않다’가 생략된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다.’는 성립이 가능하다.

③ ㉡의 ‘사다’와 ‘모으다’는 ‘그는 한동안 소설책만 꾸준히 샀다.’와 ‘그는 한동안 소설책만 꾸준히 모았다.’처럼 둘 중 하나만 서술어 자리에 나타나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두 동사 모두 문장 속의 ‘그는’, ‘소설책만’과 관련을 맺고 있다. ⑤ ㉢에서 ‘그녀는 이웃집 아이를 위해 노래를 싫었다.’는 ‘싫다’가 ‘그녀는’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비문이다. 따라서 ‘싫다’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 볼 수 없다.

37. [출제 의도] 음운 변동에 따른 음절 유형 파악하기

‘물놀이[물로리]’는 연음이 일어나 [놀]이 [로]로, 즉 ‘자음+모음+자음’에서 ‘자음+모음’으로 음절 유형이 바뀌었다. 또한 [이]가 [리]로, 즉 ‘모음’에서 ‘자음+모음’으로 음절 유형이 바뀌었다. ‘아랫입술[아랜닙술]’은 음운 변동(ㄴ첨가)이 일어나 [립]이 [닙]으로, 즉 ‘모음+자음’에서 ‘자음+모음+자음’으로 음절 유형이 바뀌었다. ‘육각형[육가켄깅]’은 음운 변동(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나 [각]이 [가]로, 즉 ‘자음+모음+자음’에서 ‘자음+모음’으로 음절 유형이 바뀌었다. 반면 ‘닭고기[닥고기]’는 음운 변동(자음군단순화, 된소리되기)이 일어나지만 음절 유형은 바뀌지 않았다.

38. [출제 의도] 단어의 형성 방식 파악하기

‘오르내리다’는 용언의 어간 ‘오르-’와 용언의 어간 ‘내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① ‘눈물’은 명사 ‘눈’과 명사 ‘물’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② ‘큰형’은 용

언의 관형사형 ‘큰’과 명사 ‘형’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 ‘뉘밭’은 용언의 어간 ‘뉘-’과 명사 ‘밭’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⑤ ‘눈썹다’는 용언의 어간 ‘눈-’과 용언의 어간 ‘푸르-’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39. [출제 의도] 중세 국어의 격조사 쓰임 파악하기

㉠의 ‘지비(집 + 의)’는 현대어 풀이가 ‘집에’이므로 부정명사인 체언(집)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의’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의 ‘부텨(부터 + 人)’는 현대어 풀이가 ‘부처의’이므로 존격의 자질이 부여되는 체언(부터) 뒤에 관형격 조사 ‘-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소늬(손 + 을)’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손) 뒤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의 ‘님금하(님금 + 하)’는 현대어 풀이가 ‘임금하시어’이므로 존대의 대상인 체언(님금) 뒤에 호격 조사 ‘하’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춧소리(춧소리 + 들)’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춧소리) 뒤에서 목적격 조사 ‘들’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40. [출제 의도] 매체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가)의 진행자는 ‘포통’의 ‘허리 통증을 ~ 방법도 알려 주세요.’라는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요가 자세를 배울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다음 방송에서 다른 주제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다.

① 진행자의 ‘개인 정보는 소중하니까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보여 드릴게요.’에서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정 정보를 제외한 화면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은새미’의 ‘정확히 어떤 ~ 알려 주세요.’와 진행자의 ‘(이미지를 검색하며) 어느 부위인지 보여 드릴게요.’에서 수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진행자의 ‘(손가락으로 천장 쪽을 가리키며)’에서 설명 내용과 관련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출제 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태도 파악하기

‘아롱별’은 실시간 댓글에서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면 방송 화면의 문제를 언급하고 ‘조금 좀 선명하게 맞춰’ 달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미룡이’는 ‘우리 집에 있는 의자는 등받이가 없’다며 자신이 처한 환경의 제약을 언급하고 있으나,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③ ‘꽃구름’은 ‘운동을 할 때 호흡이 중요 하던데’라며 운동 중 호흡에 대한 배경지식을 언급하였으나, 설명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④ ‘은새미’는 ‘정확히 어떤 ~ 알려 주세요.’라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진행자의 설명에 대한 장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⑤ ‘포통’은 ‘조용한 곳에서도 ~ 좋네요.’라며 방송 내용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드러내었으나, 이와 관련한 경험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42. [출제 의도]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 파악하기

‘다만, 임신부 ~ 금지!’는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임신부 및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당 동작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와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요가 동작을 찾아 실천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요가 운동이 불필요한 대상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① (나)의 ‘오른쪽에 있는 영상상 ~ 인증하는 방식인데요.’를 통해 동영상상을 제시하여 요가 인증 도모에서 활용할 동작을 소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운동인증’ 검색해서 왔다는 ‘신청

의 댓글과 ‘#운동기록’, ‘#요가’, ‘#운동인증’을 통해 특정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해당 문구로 게시물이 쉽게 검색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1일째]와 [10일째]의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하고, ‘1일째보다 10일째의 자세가 좋아졌는데요.’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하여 잘못된 자세와 개선된 자세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가입하고 싶은 분은 댓글 남겨 주세요.’를 통해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 [출제 의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이해하기

㉠에 사용된 ‘다가’는 동작이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진행자는 연결 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숨을 들이쉬며 배를 부풀린 동작이 중단되고 나서 ‘배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도록 안내하고 있을 뿐, 배를 부풀리는 것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의 ‘이나’는 수량이 크거나 많음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진행자는 보조사 ‘이나’를 사용하여 사연을 보낸 인원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의 ‘-어’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진행자는 연결 어미 ‘-어’를 사용하여 ‘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의 ‘의미’는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진행자는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등반기가 있는 의자뿐만 아니라 ‘등반기가 없는 의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위를 알려 주고 있다. ⑤ ㉤의 ‘-어야’는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진행자는 연결 어미 ‘-어야’를 사용하여 ‘상체를 쭉 펴 주’는 것이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44. [출제 의도] 매체 활용 방식 파악하기

(가)에서 ‘남훈’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뒤, ‘동의하면 공감하기로 알려줘.’라고 하고 있다. 이는 공감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관해 대화 참여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것일 뿐,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은영’은 만족도 조사 결과 피임을 전승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⑤ ‘은영’은 공지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회의와 관련된 사항인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45. [출제 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남훈’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2의 [학습 통계] 항목에서는 요일별로 공부에 집중한 시간을 과목별로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대비 현재 학습량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는 ‘계운’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2의 [일정 관리] 항목에서는 5일간의 날짜가 표시되도록 조정하였다. ② ‘앨’ 사용자들도 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2의 [일정 관리] 항목에서는 ‘일정 등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③ ‘퀴즈 형식으로 영어 단어를 제시’하자는 ‘지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2의 [오늘의 단어] 항목에서는 영어 단어 제시 방식을 퀴즈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④ ‘과제를 끝낸 후 체크 박스를 눌러 완료 표시를 남길 수 있게 하자는 ‘성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2의 [할 일 목록] 항목에서는 과제 완료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